

5·18 진실규명·헌법 수록 국정과제 포함 박차

광주시 '5·18과제 실행위원회' 전국 순회 학술 토론회·공청회 내일 옛 도청 복원 공청회도

광주시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작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5·18의 완전한 진상 규명과 정신계승은 물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각 분야별로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정 내에 '5·18 국정과제 실행위원회'를 꾸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우선 문 대통령이 강조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조만간 전국 순회 학술토론회와 국회토론회, 시민공청회 등을 열고 헌법전문 개정안 초안을 작성해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5·18 진실규명을 위해 헝가리 사건의 진실책자를 발간하고 5·18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5·18 진실규명 지원단 발족과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팀 서록의 미국 문서 연구작업 참여, 전일빌딩 총탄흔적 국과수 조사 등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5·18 당시 유적 복원과 기념사업도 속도를 낸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지원팀을 시정

내에 구성하고 지난달 2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무관 2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지원팀은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시·도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시의 단일안을 만들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전남도청 복원에 따른 각종 유물과 자료 수집에도 나선다.

오는 13일에는 대책위와 5월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옛 전남도청 복원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총 사업비 1175억원을 투입해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인권교육훈련센터, 인권평화교육센터, 인권평화기념공원, 5·18사적지 원형 보전, 한국민주주의전당, 솔로몬

파크 등 민주인권의 미래 세대 교육과 체험공간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거쳐 2019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국책사업에 빠져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다.

5·18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작업을 위해 운영현 시장이 직접 수시 보고회를 주재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의지를 다지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수시로 보고회를 여는 등 5·18 관련 추진 사항을 직접 챙길 계획이다"며 "5·18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개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옛 전남도청 복원 등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안전한 동네 만들어 주세요”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9일 서구 5·18기념문화관 민주홀에서 열린 '제19회 광주시 119소방동요경연대회'에서 알프스어린이집과 송원초등학교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지역 유치원 10개 팀, 초등학교 7개 팀 등 총 17개 팀, 457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광주시 제공>



“광주 춤신춤은 나” 지난 10일 광주 수완호수공원에서 열린 광산구 주최 '가람배 청소년 댄스경연대회'에서 장덕고 'Xeroflulogitis crew'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장덕고 학생 7명이 구성된 이 팀은 '자유'를 주제로 열정 가득한 창작 댄스를 선보였다. <광산구 제공>

마을 가꾸 얻은 포인트, 환경 예산으로 돌려 드립니다

내일 '다가치 그린' 성공대회 시, 591건 2800만원 예산 지원

시민이 직접 환경 활동에 참여하고 모은 포인트로 동네의 환경을 개선하고 가꾸는 시민 주도형 환경활동이 시작됐다.

광주시에 시민 주도형 동네 환경공동체 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다가치 그린' 동네 만들기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다가치 그린'은 시민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쓰레기 방치나 악취 등 불결 등을 신고하거나 해결하는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이 포인트를 광주시로부터 예산으로 바꾼 뒤, 자신의 동네 환경개선사업에 활용하는 동네 관계망 활동이다.

'다가치 그린' 동네 만들기 사업은 시민 스스로 동네 환경문제를 다 같이 해결하고

풀어나가며 시민 스스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가는데 의미가 있다.

시는 '다가치 그린' 동네 만들기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오는 13일 오후 4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공모로 선정된 참여단체 회원 및 주민, 환경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가치 그린' 동네 만들기 성공다짐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짐대회는 '우리 다 같이 외치는 날, 광주를 다가치 그린으로 물들이자!'라는 부제로 행사를 갖게 되며 참여 단체별 목표설정 선언과 문흥초 학생들을 비롯한 참가자 전원이 '다가치 그린 송'을 부른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12개 단체는 포인트 펀딩 방식으로 환경지킴이 활동을 한 시민들이 모은 포인트 591건을 2800만원의 예산으로 바뀌 동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지킴이 활동이 활성화되면 내년부터는 예산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업은 고질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등 동네 환경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마을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통한 행동의 변화 및 실천이 중요해 '어떻게 하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인가'에 목적이 있다.

이번 다가치 그린 동네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농성초등학교는 전교생과 학부모, 교사가 주축이 되어 적립된 포인트를 기부해 학교담장 벽화 그리기와 체험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성과를 내고 있어 돋보였다.

문흥초등학교는 교사와 환경동아리 도깨비팀 학생 등 22명이 주축이 돼 '다가치 그린 송' 부르기, 환경보호다짐 및 환경퀴즈 부스운영, 캠페인 등으로 늘어치름 즐겁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수완 아름다운 휴먼시아 2단지에는 단지 내 쓰레기 상습 투기구역에 호박밭과 해바라기 꽃길을 조성해 주민 힐링공간으로 활용하고, 매주 첫째 주 월요일을 동네 청소의 날로 지정하는 등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문성중과 '심시일반 나눔 마을학교' 단체가 뒷밭 가꾸기와 소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스스로 동네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환경공동체 모델창출 및 전파 ▲고질적인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개선사례 발굴 ▲민·관·학 연계 동네 만들기 사례 발굴 ▲초등학생 대상 현장체험형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4월 출시한 '다가치 그린' 모바일 앱 회원은 모두 4600여 명으로 앱을 내려받은 횟수는 1만여 건에 이른다. 모두 7종으로 이뤄진 앱 운영 실적은 ▲쓰레기 방치신고 440건 ▲공모사업 펀딩참여 591건 ▲화장실, 악취 등 공공시설물 평가 1442건 ▲환경관련 설문조사, 퀴즈 등 이벤트 1474건 등으로 나타났다.

채희홍기자 chae@kwangju.co.kr

북구, 감사원 자체감사기구 심사 A등급

광주·전남 지자체 유일

광주시 북구가 자체감사 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A'를 받았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고 성적이다.

북구는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208개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자체감사기구 활동 내실화를 위해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 28개 지표를 심사해 최고등급인 A부터 최하위 등급인 D까지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북구는 감사활동 및 성과, 사후관리 등 평가항목 전반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보다 한단계 상승한 A등급을 차지, 광주·전남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기관장의 배려와 소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내부 혁신과 함께 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체계적인 감사를 펼친 결과로써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공정성 등 감사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인정 받았다.

송광은 북구청장은 "이번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성과는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정량하고 공정한 구성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체감사활동 여건 개선과 함께 감사역량 강화를 통해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감사활동 및 성과, 사후관리 등 평가항목 전반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보다 한단계 상승한 A등급을 차지, 광주·전남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기관장의 배려와 소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내부 혁신과 함께 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체계적인 감사를 펼친 결과로써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공정성 등 감사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인정 받았다.

송광은 북구청장은 "이번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성과는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정량하고 공정한 구성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체감사활동 여건 개선과 함께 감사역량 강화를 통해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리산 온천지구내 K호텔

**깨끗하게 새단장 했습니다!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숙박문의 H. 010-3605-5000
061-783-8090

대형모텔 매매·동업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2평 건물 718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세미나실/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6월10일 오픈예정
- 시세/감정가 - 17억
- 매매 - 14억 5천만원 (조정가능)
- 동업 - 협의 (경험자우대)
- 용자 8억 포함, 법인체 인수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